

군산시, 태풍 '솔릭' 피해 대비 비상체제 유지

산사태·붕괴 예방 위해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물 점검 이승복 부시장, 건설현장 직접 찾아 태풍 피해 대비 만전

군산시는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북상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산사태와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했으며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등 배수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연안어선의 대피명령과 소형어선의 인양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단지 등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강풍 및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동주택 등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에 나섰다. 특히 이승복 부시장은 23일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태풍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공사장 주변 배수시설과 안전펜스의 고정상태, 고층의 자재 적재 등 위험요소를 재정비하고, 특히 강풍으로 인한 타워 크레인 전도 사고 발생 시 재산·인명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피해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며 태풍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타워 크레인의 운영을 전면 중지하고



이승복 부시장은 23일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태풍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태

풍 피해 발생 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풍수에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암모니아 가스 사고 현장 방문 대책 약속

"주민안전 최우선... 요구사항 충분히 검토 할 것"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22일 최근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발생한 서수면을 찾아 산간마을 주민 및 공장 대표 등과 함께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대책 강구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6월 1차 사고 당시 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번과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그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행정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사후 안전조치와 업체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대표 역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향후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사고를 발판삼아 군산시의 재난관련 대응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앞으로도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통·위민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자율형 건물번호판

익산시, 설치 적극 권장

익산시가 기존의 획일적인 건물번호판에서 벗어나 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건물번호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표준형 건물번호판 규격보다 작지만 다양한 모양 색깔 재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제작이 가능하고, 이로써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 주변 건물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 단순한 주소 표기를 넘어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제작 설치 계획서를 첨부해 시청 종합민원과 새주소계로 제출하고, 이후 제작가능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후 사진을 첨부해 완료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 허가·신고할 경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품격도시 익산에 걸맞게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한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까지 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의정활동

산업단지 내 불법 방치된 4000여 톤 폐기물 대한 실태 파악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3일 익산장애인복지관과 제1국가산업단지 내 불법폐기물 적치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간위탁기관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재활·자립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도심중심부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에 불법으로 방치된 4000여 톤의 폐기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처리대책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장애인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장애인들이 균등한 복지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익산에서 개최될 전국 체전을 앞두고 지역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빠른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무단 방치 불법폐기물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치밀하게 정비하고 지속적인 폐기물 업체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불법폐기물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30일부터 한·중·일 교류도시 섬 사진전

군산시는 교류도시인 중국 베이하이시, 일본 다카마쓰시의 아름다운 섬을 사진으로 만나보는 '한·중·일 섬 사진전'을 오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제2·3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에는 도시별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참여해 섬 풍경, 관광지, 주민들의 생활을 사진에 담았으며, 한

국 25점, 중국 20점, 일본 20점 등 총 65점을 전시해 많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섬의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진전을 통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군산의 고군산군도와 중국의 유일무이한 화산섬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화산 분출과 퇴적작용으로 기이한 경관을 갖고 있는 베이하이시의 웨이저

우다오, 일본의 지중해라 불리며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다카마쓰시의 세토내해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 베이하이시는 군산시와 같은 기간(8. 30~9. 4) 동안 사진전을 개최하며, 일본 다카마쓰시는 11월중에 전시할 예정으로 도시 간 상호 전시를 통해 상호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봉인 강력 시행

익산시가 자동차체 체납액 일소차원에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봉인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력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체 관내 체납 2회 이상 또는 관외 체납 4회 이상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 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체 체납건수는 5만 2천

여 건 체납액은 62억 원으로 재정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6280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한하여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니 영치가 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을 기울여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어양동 마한로 미개설 구간 도로 개설 착수

익산시가 어양동 마한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공사를 9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최근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간 주민들의 도로 개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도에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백제공업사에서 어양중학교 사이 230m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함에 따라 9월 중 공사를 착공해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도 2019년도에 예산 확보 후 계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조속히 도로 개설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한로는 총 연장 L=3.940m로 2000년 초까지 2.660m를 개설하였고 현재 부송택지개발지구 구간을 제외한 520m가 미개설되어 있어 총 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